



“새로 얻은 생명 존각아겨 남김없이 회향”

■출판·인터넷 포교 열정 불태우는 무비 스님

불교안내서 15권 잇따라 출간 카페 개설 1년만에 회원 2600명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살아 있는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회향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진 것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내 생애를 다 바쳐서 부처님 가르침 배워왔으니 힘 닿는 데 까지 되돌려주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11월 21일 범어사 서지전에서 만난 무비 스님(사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반짝’ 빛을 낸다. “인생은 짧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하시는데 그 만 개가 절로 끄덕여져 버린다. 짧고도 소중한 인생을 남김없이 연소시키기 위해 일분일초를 아끼는 스님의 일상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책 출간에서 집적되고도 남는다.

스님은 최근 조계종출판부, 운주사 등에서 <천수경> <반야심경> <인제록 강설>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 등 15권의 책을 한꺼번에 출간했다. 이들 책은 모두 일반인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서다.

특히 최근 펴낸 <무비 스님이 가르쳐 줬던 명구 모음집>은 스님이 기록했다가 태우고 또 기록하길 반복해오던 불교 명구들을 병상(病床)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스님은 곧 700여쪽 분량의 이 책에서 다시 가르쳐 줬던 명구들을 번역, 해설한 책을 펴낼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120회에 걸쳐 진행한 <법화경> 강의 시리즈를 펴내고 내년쯤에는 선에 관한 책을 펴낼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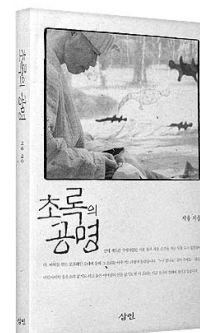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의 포교 열정이 피워낸 불꽃은 인터넷에서도 뜨겁다. 2004년 11월 개설한 카페(cafe.daum.net/yumhwasi)는 시공을 초월해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실시간 법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부한 콘텐츠로 회원이 2700명을 넘어섰다. 평일 접속자수만 5백여 명을 웃돌아 개설 1년 만에, 7천개에 달하는 다음(www.daum.net)의 불교 카페 중 10위권 안에 들었을 정도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목숨을 걸라”고 주문하는 무비 스님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람이 곧 부처님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못 나면 못난 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의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것이 불교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알리는 것이 부처님 법 축년 법값 하는 거라 믿고 있어요.”

부산/글·사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천성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초록의 공명
지울 스님 지음
삼인 | 1만2천원

올해 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울 스님의 단식, 고속철도(KTX) 천성산 관통터널 굴착공사를 반대하며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무려 100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 이 단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정부가 내세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여론몰이식 언론 보도로 인해 지울 스님 단식의 참의미는 상당부분 왜곡돼 있을 것이다.

단식 해제 후 스님의 단식을 기념하여 기록한 11개월간의 기록

보도하며 떠들썩했던 언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고 정부가 약속한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는 지울 스님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천성산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할 것인가?

스님의 두 번째 책 <초록의 공명>에는 2004년 3월 10일부터 100일 단식을 끝낸 후 2월 3일까지 기록한 스님의 일기와 편지글, 자연에 대한 단상, 강연원고, 외부인사들의 기고글, 신문기사 그리고 천성산 사건 진행일지 등이 담겨 있다.

스님의 글은 자신을 향하는 일기나 다른 이들(대통령과 변호사, 도량봉의 친구들 등)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읽다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게 된다. 또한 이 글들은 ‘지울 스님의 뜻에 천성산이나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천성산 사건이 정확히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지울 스님이 산사에서 나와 싸워야 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지울 스님은 말한다. 천성산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국토를 살리고 생명과 문화를 살리는 원점이 아니겠느냐고.

천성산 투쟁으로 우리의 병든 산하(山河)만큼이나 병든 몸을 이끌고 국토순례에 나선 지울 스님은 언제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부처님과 예수님 가르침은 하나”

법륜 스님 - 이현주 목사 공동 출판기념회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이끌고 있는 법륜 스님과 불교와 기독교를 아우르는 저술활동을 펼쳐 온 이현주 목사가 한자리에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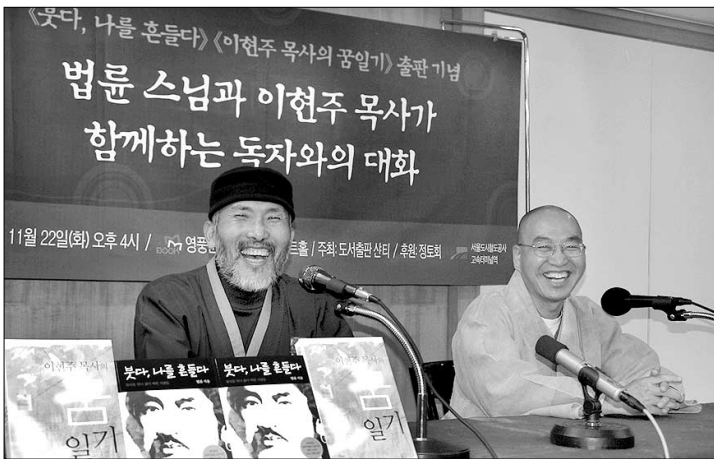
최근 각각 <부다, 나를 흔들다>(산티 펴)와 <이현주 목사의 꿈일기>(산티 펴)를 펴낸 두 사람은 11월 22일 영종문고 서울 강남점 이벤트홀에서 100여 명의 독자들과 만나 공동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목사는 1999년 부처님 오신날 법륜 스님의 초청으로 정토회에서 설교를 했고, 법륜 스님은 2001년 이목사가 <이 아무개 목사의 금강경 읽기>를 출간했을 때 추천사를 쓰는 등 서로 교우를 맺어 왔다.

법륜 스님이 올 초 불교방송에서 했던 ‘100일

법륜’ 내용을 간추린 <부다, 나를 흔들다>와 이목사가 지난 한해 기록한 일기를 모은 <이현주 목사의 꿈일기>는 비록 ‘불교’와 ‘기독교’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부다, 나를 흔들다>는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날 때 혹은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륜 스님은 부처님을 만나 살아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법륜 스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그 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려 애쓴다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환갑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묵언수행을 했던



이목사는 “묵언 기간 동안 성대를 울리지 않았을 뿐이지 손으로 눈으로 급하면 글씨를 써서라도 말을 했다”고 고백한다.

“진짜 묵언은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묵언을 통해 ‘나 자신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를 고민했고,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말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목사의 꿈일기>는 묵언 기간 동안 쓴

꿈에 대한 이목사 나름의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이목사는 일상적인 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한다.

‘명상의 시간’ ‘독자와의 대화’ 순서 등으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두 사람은 “행복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성 스님 ‘동안거’, 민족사 출판공모전 우수상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실시한 제1회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결과 현성 스님(현암사 총무)의 ‘동안거’가 우수작에 선정됐다.

참신한 원고와 대중적인 필자를 개발함으로써 불교출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전’은 두 달여라는 길지 않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32편의 원고가 접수

됐다. 불교출판원고 공모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동안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스님들의 선방 생활을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그려낸 수필이다.

우수작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원고는 민족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민족사는 매년 출판원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02)734-2404 여수령 기자

한승원씨의 담백한 인생론

이 세상을 다너가는 것 가운데 바람 아닌 것이 있리라
한승원 지음 | 황금나침반 | 9천8백원

소설가 한승원씨가 자신의 인생관과 작품관을 담은 <이 세상을 다너가는 것 가운데 바람 아닌 것이 있리라>를 펴냈다. 자신이 타고 자란 전남 장흥의 바닷가를 ‘문화의 모태(母胎)’라 밝혀 온

한씨는 장흥 바닷가에 ‘해산도굴’을 짓고 살면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의 기교 장치’를 모두 버리고 직설적이고 간결한 언어로 털어놓는다. 이 책의 부제처럼 ‘세상과 삶의 경계에 선 노작가의 깊고 겸허한 인생론’인 셈이다.

스물여섯 살 되던 해 봄에 결혼한 아내와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고향 노인들의 무욕한 얼굴에서 느끼는 평화, 꽃·나무·새·차(茶)로부터 얻는 열악이 향기로운 문체에 담겨 있다.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심혈을 기울인

한글 세대를 위한 독송용 경전 ①~⑩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 편안하고 시원한 편집, 알기 쉬운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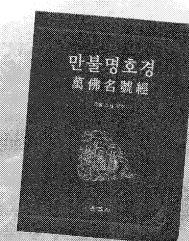
대강백 무비 스님과 경복대 조현춘 교수가 불자들에게 사랑 받는 주요 경전들을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한글 세대가 독송하기 좋게 경전의 뜻을 정확히 전하면서도 쉽고 유려한 우리말로 옮겨 놓았으며, 기존 독자들을 위해서는 한문 독송용 원문을 함께 실고 있다.

- ① 지장경 218쪽 / 7,000원
- ② 관음경 94쪽 / 5,500원
- ③ 불유교경 108쪽 / 6,000원
- ④ 백팔대참회문 136쪽 / 5,500원
- ⑤ 금강경 194쪽 / 6,500원
- ⑥ 아미타경 90쪽 / 5,000원
- ⑦ 보현행원품 190쪽 / 6,500원
- ⑧ 예불문(천수경) 122쪽 / 5,500원
- ⑨ 일반법회 120쪽 / 5,500원
- ⑩ 매일법회 96쪽 / 5,000원

부처님 명호를 독송하거나 모시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

각종 경전에서 일만 부처님 명호를 뽑아내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함을 물론, 부처님처럼 모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월운 스님 감수/1,008쪽/사륙배판
금장 가죽양장/45,000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제 부처님의 이름을
선남자 선여인들이 받아 지내 읽고 또 외운다면 그 사람은
현재에 안온히 모든 어려움을 멀리 의의고 모든 허물이 소멸될 것이요 미래에 분명
아득다삼박삼보라를 얻을 것이다.” — 불설불명경